

수사학의 활용방식으로서 설교와 설득의 문제

문 영 식

송실대, 서양중세철학

1. 들어가는 말
2. 수사학과 설득
3. 설교와 설득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중세 수사학의 활용방식이라 할 수 있는 설교와 설득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수사학의 목적은 설득이며 수사학의 중요한 요소는 연설을 하는 화자와 연설을 듣는 청자이다. 수사학은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소통을 통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고전 수사학의 연설은 각 연설마다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정 연설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의회 연설은 제안된 정책을 옹호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연설이며, 식사 연설(epideitic, ceremonial)은 장례식 추도사와 같이 어떤 사람을 칭송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연설에서 화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수의 청중에게 연설을 한다. 그리고 청중은 화자의 의도를 읽어냄을 통해 화자와 청중 사이에 설득의 초석이 놓이게 된다. 중세에 수용된 수사학은 종교의 설득 영역에서 그리스도교적 연설인 설교(*ars praedicandi*)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설교는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성서에 담긴 신의 메시지를 그리스도교 교사 또는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가 신의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이유로 설득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은 종교적 권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능변이나 설득의 문제에서 예외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설교는 설득의 문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설교 역시 다른 연설의 장르들처럼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설교는 성서에 담겨진 신의 메시지를 화자가 연설을 통해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연설의 장르이다. 이때 연설자는 교화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감동을 통해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스도교 수사학은 고전 수사학의 설득의 요소를 그리스도교에 적용하여 설교라는 종교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진리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의사소통의 역할을 담당한다. 고전 수사학이 화자와 청중 사이의 설득을 야기하는 수사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처럼, 설교 역시 화자와 청중 사이의 상황을 고려하며 설득을 지향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수사학과 중세 수사학 사이의 다리를 제공한 인물이다. 이 논문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의 실행인 설교에서 고전수사학의 설득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동화되고 발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사학과 설득

2.1 왜 수사학인가?

수사학은 대중을 향해 연설을 하는 연설가의 ‘말 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수사학은 기원전 5세기 초 독재정이 무너지면서 토지소유권 분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수사학은 탄생과 함께 토지소유권 분쟁의 해결이라는 임무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중연설의 기술은 기교를 부려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능숙한 화술을 요구하며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수사학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분쟁을 해결할 때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달콤한 사탕발림’을 해야 하는 상황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수사학이 설득을 지향하지만, 설득하기 위해 수사학이 오용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학은 많은 편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수사학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입장에 서있는 것이 플라톤이고, 이런 모습은 그의 『고르기아스』에 잘 나타난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수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수사학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은 그것이 기술이 아니라 숙련¹⁾이라는 것이다. 플라톤은 기술의 범주와 요령의 범주를 구분하고 요령의 범주를 아첨으로 그리고 기술의 범주를 지식으로 정의한다. 기술의 범주는 이성적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학적 활동과 관련이 있지만, 요령의 범주는 경험적 활동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의 즐거움과 관련을 맺는다. 그러므로 ‘화장술’, ‘요리술’, ‘궤변’ 및 ‘수사술’을 요령의 범주에²⁾, 그리고 ‘체육’, ‘의학’, ‘법률’ 및 ‘정의’를 기술의 범주에³⁾ 분류한다. 수사학은 참된 인식이 수반된 기술이 아니라 숙련이기 때문에 ‘화장술’, ‘요리술’처럼 요령의 범주에 속하여 무지한 청중들을 현혹할 수 있다. 요리가 사람의 미각에 호소하여 만족과 기쁨을 주고 화장이 사람을 더 아름답게 꾸며서 보기에 좋게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것처럼 수사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라하는 것이다. 신체를 돌보는 기술에는 체육술과 의술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아첨술은 화장술과 요리술이다. 체육술과 의술은 사람의 겉보기만을 좋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런 관점에서 화장술과 요리술이 하는 역할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과는 무관한 신체와 관련된 기술이다.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기술에는 입법술과 사법술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아첨

1) Terence Irwin, *Gorgias*, 462b2-462d8 (Oxford: Clarendon Press, 1982).

2) Ibid., 462d9-463d1.

3) Ibid., 463d-466a4.

술은 수사술이다. 입법술과 사법술은 영혼을 돌보는 기술의 원본이 되고, 수사술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 대해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⁴⁾ 아침술은 쾌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끄럽고 염치없고 추한 것이다.⁵⁾ 이러한 구분의 의도는 수사학이 ‘말로 설득을 이룬다’고 하지만 참된 인식이 없이도 무지한 청중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속임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속임수는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입담이나 기교를 부려 청중들에게 그것이 진리인양 믿게 한다. 그러나 플라톤에 따르면, 그러한 것들은 폴리스 시민들의 무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폴리스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수사학이 과연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아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수사학이 외양만 좋게 하는 아침인가?

진정한 수사학이 되기 위해서는 폴리스 시민들의 신체에 아부하는 아침이 아닌 영혼을 돌보는 기술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진정한 수사학은 영혼을 인도하는 기술”⁶⁾이라고 정의 내린다. 수사학은 실제 대중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을 밝히는 과정에서 청중들을 참과 정의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 수사학은 달콤한 말의 ‘사탕발림’으로 참을 거짓으로 바꾸거나 또는 거짓을 참으로 변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옳음을 그름으로, 그름을 옳음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화자가 수사학을 통해 설득을 해야 하는 수사적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참을 거짓으로, 정의를 불의로 설득하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그 역의 경우가 두 번째이다. 그리고 참을 참으로, 정의를 정의로 말하는 경우가 마지막 세 번째라 할 수 있다. 만일 첫 번째와

4) 이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본	아침술
영혼을 돌보는 기술	입법술, 사법술	쾌변술, 수사술
신체를 돌보는 기술	체육술, 의술	화장술, 요리술

5) Irwin, *Gorgias*, 463a-b.

6) Plato, *Phaedrus* 261b, trans. Stephen Scully (Massachusetts: Focus Press, 2003).

두 번째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수사학은 인간의 영혼을 올바르게 진리로 이끌 수 없게 된다. ‘화장술’과 ‘요리술’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잘 돌보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수사학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영혼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플라톤에게 있어 수사학은 세 번째 경우인 진리와 정의를 올바르게 말 할 수 있을 때 유용하다.

플라톤이 『고르기아스』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사학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부심한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수사학은 인간의 영혼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기술이라 생각했다. 4세기에 그리스도교 시대(christiana tempora)에 교회는 이단사설의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과 그리스도교 교의를 확정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⁷⁾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의 과제를 4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수사학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이며 이교도들을 향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가르치고 변증하는 데 사용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로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논쟁했다.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단사설에 대해 반박하는 논쟁에 몰두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많은 저작들이 교회와 교리의 대적자들에 반박을 하기 위해 저술되었다. 특히 마니교도(Manichees), 도나투스주의자(Donatists), 펠라기우스주의자(Pelagians)들이 그의 논쟁의 주요한 대상들이었다. 그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반박했다. 그는 진리에 대해 논쟁하고, 반대자를 공격하고, 대답하고, 논박하고, 재진술 하는 방식으로 공적인 논쟁을 했다. 논쟁은 때로는 논문들이나 편지와 같은 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때로는 설교나 집견을 통해 웅변으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논쟁의 방식이 시행되었으며 특히 웅변을 통한 논쟁이 매우 대중적으로 시행되었다. 아우구

7) J. Murphy, “Saint Augustine and the Debate about a Christian Rhetoric”, *The Rhetoric of St. Augustine of Hippo*, ed. Richard Leo Enos & Roger Thompson et al. (Waco, Tex.: Baylor University Press, 2008), 206.

스티누스는 이러한 논쟁에서 ‘그리스도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학을 인식하고 사용하였다.

앙리 마루(Henri Marrou)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논쟁을 벌인 시기를, 마니교도(387-400년), 도나투스파(400-412년), 펠라기우스파(412-430년)로 구분한다.⁸⁾ 이 구분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386년에 그리스도교로 회심한 후 자신이 9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마니교도와의 논쟁을 시작으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 계속되었고, 그의 거의 전 생애를 이단과의 논쟁에 할애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교도들과 진리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도 거짓이 진리로 위조되거나 진리가 거짓으로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일 수사학이 진리의 전달보다도 특정한 기쁨이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진리는 왜곡되는 것이며 플라톤의 지적처럼 요리술이나 화장술 같은 아첨술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학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미사여구나 기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르침(docere)을 통해 진리가 진리로 소통되느냐에 달려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의 매개 역시 말(verbum)이다. 말을 통한 설득은 신체의 즐거움이나 쾌락에 관여하지 않고 인간의 영혼에 관여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수사학을 통해 전달되는 그리스도교적 진리는 신체에 아첨하지 않고 인간에게 진리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은 신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다. 수사학을 통해 신체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닌 영혼이 영원을 향하도록 한다. 즉 인간의 영혼이 가변적인 것을 넘어 불변하는 선을 지향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수사학을 통해 효과적인 진리의 전달과 설득이 이루어지고 참된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은 행복해 질 수 있고, 이것이 인간의 영혼을 위해 가장 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8) Henry Marrou, *St. Augustine and his influence through the age* (London: Harper & Brother, 1960), 47-49. 특히 49쪽에서 마루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에 걸쳐서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9가지 논쟁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마니교도들, 도나투스주의자들,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3대 논쟁이라 한다. 이 외에 점성가들, 유대인들, 프리스킬라우스파, 아리우스파, 아폴리나리스파와 논쟁했다고 말한다.

수사학을 그리스도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플라톤이라 할 수 있다.⁹⁾

2.2 수사학과 설득의 관계

2.2.1 아리스토텔레스와 설득

고전 수사학에서 연설은 크게 법정 연설·의회 연설·식사 연설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법정 연설은 주로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둘러싸고 화자가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대방을 고발하는 것이다. 의회 연설은 일반적으로 정치 집회에서 화자가 청중들에게 미래의 일들에 대해 설득하거나 단념시키는 정치적인 연설이며, 식사 연설은 종교적 축제나 생일, 결혼, 장례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축하나 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연설이다. 이 연설들은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 구분된다. 먼저 연설이 행해진 장소에 따라 법정 연설은 재판소에서, 의회 연설은 정치적 집회 장소에서, 그리고 식사 연설은 축하연이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다. 연설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 그리고 현재를 다루느냐에 따라 연설이 법정연설, 의회 연설, 식사 연설로 구분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 고발과 변호, 그리고 설득과 단념, 칭찬과 비난의 연설로 구분된다. 연설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에 있다. 설득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다른 사람이 납득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청중이 연설가의 주장을 듣고 신뢰감 또는 신실한 ‘신뢰’(pistis)를 갖게 되는 경우에 설득이 일어난다. 청중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신뢰와 확신은 연설가 자신이 갖는 주장에 대한 신실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연설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가지는 신실한 신뢰가 청중의 마음

9) 플라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에 미친 영향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는 Craig R. Smith, *Rhetoric & Human Consciousness* (Long Beac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2003), 168-172를 보라.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설득이다. 설득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연설가의 의도와 청중의 읽어냄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설의 목적이 설득에 있다면, 연설에서 설득을 이루기 위한 요소는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자를 “모든 경우에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서 설득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다.¹⁰⁾ 그리고 수사학을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설득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¹¹⁾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일종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항상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서 설득을 위한 매개와 근거를 발견하는 발견술로 이해한다. 이것은 수사학자가 모든 상황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학자는 모든 상황에서 설득의 방법을 발견하는 자라는 의미이다.¹²⁾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설득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즉 연설에서 나타나는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연설자의 인품에서 나오는 것(ethos)이고, 두 번째는 청중의 감정의 상태(pathos)이고, 마지막은 논증자체(logos)라 할 수 있다.¹³⁾

에토스는 성격과 인격적인 부분을 가리키고, 파토스는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부분을 가리킨다. 에토스와 파토스는 모두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에토스와 파토스는 설득에 있어 로고스보다는 부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로고스는 사실적, 논리적으로 타당한 증명을 할 경우와 관련된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엔 원천을 두고 이루어지는 입증이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설득하기 위해 공공의 청중을 대하게 되었을 때 수사학은 반드시 필요

10) Aristotle, *Topica* 5, 12, 149b25, trans. E. S. Fos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11) Aristotle, *Aristotle on Rhetoric* 1, 1355b26f, trans. George A. Kenned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12) 예를 들어 의사와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의사는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자신의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사학자는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없더라도 그가 설득을 위한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수사학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13) Aristotle, *Aristotle on Rhetoric* 1, 2, 1356a1-6.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화자가 주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논리적인 증명만으로 청중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과학의 원칙들에 기초한 확실한 증거를 따를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중들은 많은 경우에 주제와 관련 없는 다른 요소에 의해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이다. 청중들은 군중들의 분위기에 의해 판단이 바뀌기도 한다. 청중들은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자신과 뜻이 다를 경우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려 한다. 청중들은 때때로 아첨을 받아들이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논리적 증명에 익숙하지 않은 청중일수록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청중들은 대중 연설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의 대부분을 엄밀한 지식을 가지고 승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설가가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청중이 연설가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설득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법정연설과 의회 연설에서 역시 청중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식이 아닌 정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청중들은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판단과정에 영향을 받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중들은 연설자체에 의해 설득되기도 하고, 때로는 연설자의 인품에 의해서 설득되기도 하고, 청중들의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 설득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논구하며 수사학은 플라톤이 주장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설득과 소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능력이며 학문체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2.2 키케로와 설득

로마의 수사학은 전통적으로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43)에 의해 주도되었다. 로마의 수사학은 정치학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키케로는 『발견론』(*De inventione*) 제 I 권에서 수사학을 “기술의 규

칙에 기초한 능변을 다루는 정치학의 한 분야¹⁴⁾로 정의한다. 웅변은 정치학의 가지이며 웅변기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고 인간 행위의 폭 넓은 지식을 소유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정의를 볼 때 웅변기는 수사학뿐만 아니라 철학에 통달한 사람이어야 한다.

키케로는 연설가의 고유한 능력을 발견(inventio), 배열(dispositio), 표현(elocutio), 연기(actio) 그리고 기억(memoria)이라는 다섯 가지로 강조한다. 연설가가 다섯 가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것들은 설득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될 수 있다.

연설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inventio라는 라틴어는 문자 그대로 ‘발견하다’를 의미한다. 연설가가 해야 할 첫 과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argumentum)의 발견이다. 청중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논거에 대한 인식은 설득의 초석이다. 화자는 발견한 논거들의 배치를 통해 논증을 구성할 때, 논거가 유용하고 타당성이 있으며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열은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논거들을 목적에 맞게 배치하고 논증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신체의 입상(立像)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배열이 필요한 것처럼 연설에서 논거들의 배열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배열은 연설을 구분하고 세분화하고 장식하는 기술이다.

세 번째 임무인 표현은 연설의 문체(stillus)와 관련이 있다. 문체는 단어의 사용과 결합 그리고 문채(figura)와 전의(tropus)를 포함한다. 단일한 단어의 사용과 단어들의 결합을 통해 정확성, 명료성과 연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성이 덕목으로 요구된다.

연설가의 네 번째 임무인 연기(전달)는 연설가가 다루는 사안과 사용하는 언어에 움직임을 맞추는 것이다. 비록 제스처, 얼굴의 인상, 움직임이 비언어적인 양태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연설에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연설가에

14) Cicero, *De Inventione*, 1, 64, trans. H. M. Hubbel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게 요구되는 능력이다.¹⁵⁾ 기억은 수사학 훈련의 중요한 기술이다. 출판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기억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어떤 화자들은 자신들의 완전한 연설을 전부 다 쓰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임시 변통적으로 연설했다. 하지만 그 각각의 경우에 논변의 질서와 각 증거의 실제 모두를 화자가 기억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키케로 당시에 로마는 정부의 통치를 수사학을 최고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손에 맡겼다. 이러한 설득의 규칙에 대한 키케로의 밑그림은 로마의 연설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2.3 아우구스티누스와 설득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를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였음을 시인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에서 다루고 있는 수사학 이론은 키케로와 관련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웅변은 신적 메시지를 반영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굳게 하는데 목표를 두는 연설 장르인 설교를 위해 의회연설과 식사연설, 법정에서의 연설이라는 형식을 버렸다. 결국 이 형식은 키케로와 차별화된 규칙 체계인 중세의 설교법(*ars praedicandi*)이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수사학을 종교의 영역에 도입하여 그리스도교 설교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케네디(G. A. Kennedy)는 그리스도교 수사학의 기원을 구약 성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찾는다. 창세기 1장의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는 기록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조들과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연설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연설가로 등장하는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 “나 주님이 아니냐?”라는 구절을 전달할 때 화자는 신적인 권위

15) Donovan J. Ochs, “Cicero’s Rhetoric Theory”, *A Synoptic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ed. James J. Murphy (New York: Random House, 1972), 90-94.

에 기초한 선언을 한다.¹⁶⁾ 그리스도교 수사학은 성경을 통해 신의 뜻이 ‘말해졌으며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성조들은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연설을 들음으로써 신의 음성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설교는 연설을 통해 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¹⁷⁾ 성경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를 신자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설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스도교 수사학의 목적은 그리스도교 진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¹⁸⁾ 그리스도교 교사의 임무는 선과 악을 가르치고 진리와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며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에 대해 알려 주는 일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설교에 수사학을 도입한 이유는 설교가 가지는 연설적 기능 때문일 것이다. 설교는 연설이 가지고 있는 요소, 즉 연설가와 청중 그리고 메시지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설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설교에서 연설가는 설교가로, 청중은 신자로 그리고 메시지는 성경으로 대체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요소를 에토스,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로 들고 있다. 에토스는 연설자, 파토스는 청중 그리고 로고스는 연설 자체와 관련이 있다. 이런 설득의 요소는 세속에서 분쟁이나 송사 그리고 정치 분야나 예식에서 사용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에토스는 설교자의 인품과 삶, 파토스는 신자 그리고 로고스는 설교 자체로 이해할 수 있다. 설교에서 설교자는 성경의 진리를 청중인 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설득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설가가 고발을 하

16) G. Kennedy, *A new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257-258.

17) 헬레니즘 시대 유대인들의 예배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는 것과 랍비의 설교를 듣는 것을 포함한다. 랍비는 성서를 해석하고 성서의 메시지를 회중의 삶에 적용시켰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는 회당에서 설교를 했다. 그리스도교 설교를 의미하는 *homilia*는 처음에는 대화를 의미했지만, 차차 성서의 해석에 기초한 설교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고, 예식 설교를 제외한 모든 설교에 사용되었다.

18)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4, 3, 3 (Roma: Nuova Agostiniana Città Nuova Editrice, 1970), (성염 역, 『그리스도교 교양』, 왜관: 분도출판사, 1989).

든지 변호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단념을 시키든지 그리고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간에 청중들이 반응하도록 설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설교도 진리가 회중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설득이 필요하다. 설교에서 설득이란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청중인 신자가 진리에 동의하고 마음을 움직여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신의 진리에 영감을 받은 웅변가는 단지 행동을 지시하기 위해 가르치거나 기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이상에 맞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에게서 세 종류의 문체에 대한 개념을 차용했으며, 비록 청중들이 문체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지만 다양한 청중에게 문체를 적용시키는 방식의 세 단계로 전환했다. 학생이나 혹은 청중이 성직자의 제안을 받아들일도록 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믿음을 저항하는 자들을 개종시키는데도 사용되었다. 이 중세적 방식은 의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설득과 비난 혹은 찬양에 사용되었다.

3. 설교와 설득

3.1 에토스 개념의 발전

고전 수사학에서 연설가는 설득을 위해 인간의 성격이나 인품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에토스에 대한 지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연설가는 이 지식을 통해 청중들에게 호감을 주고 화자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자신만의 성격을 창조해내려 했다. 연설가는 저마다의 에토스의 모형을 만들어내며 설득의 요소로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토스는 로마의 웅변가이자 정치가인 키케로 시대의 에토스와는 다르며 또한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시대의 에토스와도 사뭇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에토스는 단순히 청중들의 호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지향하는 에토스’이다. 에토스의 그리스적 의미

는 관습이나 습관을 의미한다. 관습이나 습관은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신분이나 천성과 관련된 인격의 존귀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인고의 삶을 지내고 갖게 되는 자아의 정체성 또는 품성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연설을 하는 사람의 품성이 청중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면 청중들은 이미 화자의 연설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삶을 통해 묻어나는 인품이나 명성이 자자한 사람의 연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품성의 상태가 담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연설가의 품성이 그 말을 신뢰할만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에토스는 연설을 하는 사람의 성품과 관계된 것이다. 연설가가 청중들에게 신뢰를 주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설가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신중함, 덕, 호의와 같은 성품을 의미한다. 만일 연설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청중은 그의 진술을 믿을만한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연설가는 어떻게 신뢰할만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은 실천적 지성(phronesis), 탁월한 덕성(arete) 그리고 선한 의지(eunoia)로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에토스의 관점에서 볼 때, 연설가가 실천적 지성, 탁월한 덕과 선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없다면, 인간과 변화하는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청중들에게 좋은 충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연설가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의 제언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토스의 개념은 가문이나 혈통을 중시하는 로마 문화에서는 통용되기가 쉽지 않다. 로마인들은 인간의 품성이나 인격은 가정이나 혈통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감정은 한 사람의 존귀함(dignitate hominis), 그의 성취(rebus gestis), 그리고 삶의 명성(existimatione vitae)에 의해서 설득되며 만일 그것들이 실제로 있다면 그것들을 아름답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실재하지 않는 자질들을 조작해내는 것보

다 쉽다.”¹⁹⁾고 말한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분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존귀함 때문에 존귀함이 없는 사람보다 더 청중의 감정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 사람이 이루어 놓은 삶의 성취나 명성 역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문이나 혈통은 천성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거나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오랜 삶의 품성과는 거리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중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품성이나 진정성을 의미하는 에토스를 강조한 반면 키케로는 권위에 기초한 인격을 강조하는 에토스를 반영한다.

이런 고전 수사학의 에토스 개념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도교 수사학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화자의 삶의 방식이 훌륭한 연설이 된다고 강조한다(*copia dicendi forma vivendi*).²⁰⁾ 이것은 화자의 삶은 그의 연설이 충실하게 들릴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이런 삶은 언어의 훌륭함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화자의 품성을 강조하는 에토스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에 대해 말하든지 “진실하게 말하는 것보다 더 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²¹⁾고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에토스를 삶의 품성이라는 한 단면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 ‘계시된’ 언어의 문제와 연결시킨다. 즉,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화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화술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연설이 신에 의해 계시된 말씀(*Verbum*)과 인간의 말(*verbum*)이 양립하기 때문에 고려되는 문제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슨

19) Cicero, *De Oratore* 2, 182, trans. H. Rackham, M. 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20) 『그리스도교 교양』, 4, 27, 59.

21) *Ibid.*, 4, 61.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그때에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²²⁾는 성경을 인용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연설자 또는 설교자들에게 제시된 신의 말씀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 연설이 강하게 설득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신에 의해 제시된 에토스’ 개념이다.

신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간에게 채워진다면 화자는 과연 누구인가? 신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그리스도교의 연설에서 화자가 신과 인간 둘이기도 하고, 인간은 화자가 아니기도 할 수 있다.²³⁾ 인간은 성령의 대변자로서 연설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연설에서 화자는 신과 인간이다. 신이 제시한 말씀을 인간 화자는 자신의 말로 전달해야 한다. 이 때 화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훌륭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에토스’이다.

중세 문화에서 개인의 삶의 가치는 그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에 가까웠느냐로 드러난다. 개인의 삶의 이상을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일치시키기 위한 설득을 이루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훌륭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에토스’와 ‘신에 의해 제시된 언어의 에토스’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에토스의 개념은 고전 수사학이 지니고 있었던 개념이 변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2 파토스 개념의 발전

희랍어 파토스(pathos)는 “건디거나 경험하기, 고통을 겪는 것 또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처해 있는 것”²⁴⁾을 의미하는 ‘paskein’과 같은 부류에 속한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파토스를 에토스, 로고스와 함께 설득의 요소 중 하나로 다루었다. 수사학에서 파토스는 감정에 토대를 두고 인간 영혼의 상태나 조건을 어떤 특정 상태로 유도할 수 있는 언어의 범주를

22) 『그리스도교 교양』, 4, 32.

23) “ethos”, *Encyclopedia of Rhetoric*, ed. Thomas O. Sloa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4) “pathos”, *Encyclopedia of Rhetoric* 참조.

의미한다. 파토스는 부드러움에서 격정에 이르는 감정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부드러움은 청중들에게 기쁨이나 행복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감정의 자극으로 부드러운 태도내지는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이나 격정은 강렬한 자극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압도하며 즉각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파토스는 감정에 토대를 두는 설득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제1권에서 즐거움과 괴로움과 관련하여 파토스를 논한다. 즉, 인간은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향한 성향을 가지는 데 이러한 성향에 따라 인간의 마음이 변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설득의 요소인 에토스가 청중들에 대해 신뢰를 심어주기에 근거한다면, 파토스는 청중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어 즐거움을 느끼게 하거나 괴로움을 줄이게 하는 연설가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즐거움이란 괴로움이 감소된 상태이고, 반면 괴로움은 개인적인 모욕이나 모욕으로 보이는 것들이 야기한 즐거움의 감소라 할 수 있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토대로 하면, 분노의 반대가 되는 너그러움은 분노의 괴로움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를 말한다. 즐거움이 큰 상태에서 줄어드는 상태로 가는 것이 괴로움이며, 역으로 괴로움이 큰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가는 것이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연설가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자신이 전하려 하는 주제를 전달한다. 사람들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혹은 우호적일 때나 적대적일 때, 너그러울 때나 분노를 느낄 때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 경향에 의존한다. 따라서 연설가는 연설을 통해 청중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야만 한다. 우호적인 분위기에 있는 재판관은 그가 판결하려는 자에 대해 그가 악을 행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같은 사람이 정반대의 행위를 할 것으로 보일 것이다.²⁵⁾ 키케로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연설가는 이러한 믿음을 바꿀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그렇게 하기 위

25) Aristotle, *Aristotle on Rhetoric* 1, 11, 1370a-b.

해서 연설가는 자신이 청중들에게 바라는 감정을 스스로 먼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연설가가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청중이 경험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키케로에게 있어 파토스는 청중이 느낄 것으로 기대되는 감정을 신뢰할 만한 연설가가 먼저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지각됨으로써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 청중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연설가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때 신뢰가 형성된다. 키케로는 청중들을 가르치고(docere), 청중에 호의를 얻고(conciliare),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것(movere)을 연설가의 세 가지 의무로 규정한다. 청중의 호의를 얻는 것은 파토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²⁶⁾

아우구스티누스는 파토스를 의지와 결합시킴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 『신국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감정이란 영혼이 자연적 본성과 반대되는 동요의 상태에 있는 것”²⁷⁾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영혼의 능력은 기억, 지성 그리고 의지이며 이것은 각각 마음의 힘, 지식, 사랑과 연결된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의지행위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며 사랑은 인간 경험의 중심이 된다. 파토스는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과 사랑의 대상에 대한 문제가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교양』 제4권에서 키케로의 가르치기, 기쁘게 하기, 감동을 주기를 도입하며, 청중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파토스를 사용한다. 연설가의 세 가지 의무는 각각의 문체를 필요로 한다. 가르치기는 단순체로, 기쁘게 하기는 중용체로, 감동을 주기는 장엄체로 구분 한다. 이러한 구분은 특정한 주제에 어울리는 특정한 문체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루어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연설의 기능에 따라 문체를 결정한다.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체에는 파토스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분석적으로 가르친다. 중용체는 기쁨을 주어(delectare) 청중을 선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어 낸다. 마지막으로

26) “pathos”, *Encyclopedia of Rhetoric* 참조.

27) Augustinus, *Civitate Dei*, 14, 6,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장엄체는 의지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또는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언어 수단을 사용한다. 가르치기와 기쁨주기를 통해 청중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을 청중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식을 토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파토스이다.

3.3 로고스 개념의 발전

설득의 세 번째 요소는 로고스(logos)이다. 로고스는 언어나 담화 또는 논증의 언어적 구조를 의미하며 설득의 요소로 자리매김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기술(techne)로 인정하면서 로고스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했다. 수사학은 모든 상황에서 설득의 요소를 발견하는 기술이다. 법정 연설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을 다루며, 의회 연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리고 식사 연설은 평가해야 할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로고스는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유효한 설득의 요소라 할 수 있다. 연설의 세 장르에서 다루는 사안들이 이성적인 논쟁의 여지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논증의 언어적 구조인 로고스를 지향하는 것은 설득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로고스를 지향하는 학문으로 설립하고, 로고스를 설득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다. 그는 『수사학』 제1권에서 “어떤 증명은 말하는 사람의 인품에 의존하고, 어떤 증명은 청중을 어떤 방식으로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으며, 또 어떤 증명은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척하는 논증 자체에 있다”²⁸⁾고 말한다. 이것은 설득을 위한 세 가지 기술적 증명을 말한다. 첫째는 에토스요, 둘째는 파토스 그리고 마지막은 로고스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로고스는 설득의 한 요소로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인 수단으로 ‘진리나 그럴듯한 진리²⁹⁾에 기초

28) Aristotle, *Aristotle on Rhetoric*, 1, 1356a1.

29)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당한 것들보다 참된 것들에 대해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하지만 로고스는 확실하게 진실된 경우보다는 청중에게 진실된 것 또는 진실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성보다는 개연성을 보장한다.

한 설득의 요소이다. 기술적인 증명인 로고스를 강조함으로써 수사학이 정치학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 단초가 놓이게 된다. 수사학은 정치학과 마찬가지로 법정이나 정치 집단에서 설득력을 지닌 증명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나아가 수사학의 학문적인 위상을 정초하기 위한 정의를 내린다. 수사학이 변증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역설한다. 두 학문의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수사학은 변증론의 “상대향”³⁰⁾으로 그리고 변증론의 “부산물”³¹⁾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증론의 “일부이며 닮았다”³²⁾고 말한다. 수사학이 변증론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학으로서 동일한 학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증론은 연역법과 귀납법 같은 논리적 증명 방식으로 철학적인 인식을 추구하지만 수사학은 법정 연설, 정치 연설 그리고 식사 연설처럼 실용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이다. 또한 변증론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2명의 대화 상대자 간의 대화와 토론으로 인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수사학은 대중을 향한 연설을 작성하고 실행하는데 이용되고, 이 실행에 있어서 한 명의 연설가가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연설을 한다. 연설에서 로고스는 어떤 면에서는 화자의 인품에 관여하는 에토스나 청중들의 정서에 관여하는 파토스에 의해서 야기되는 설득보다도 논리적 증명에 관여하기 때문에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설득의 요소로 인정받곤 했다. 논리적 증명에 관여하는 로고스는 수사적 삼단논법을 만들어낸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논리적 증명은 귀납법(epagoge)과 연역법(syllogismos) 두 가지가 있다. 귀납법은 개별자에서 보편자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며 연역법은 가정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이 그것들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논증이다. 수사학에서 귀납적인 논증은 예증(paradeigma)이고, 연역적인 논증은 생략 삼단 논법(enthumema)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생략 삼단 논법은 공중 연설

30) Aristotle, *Aristotle on Rhetoric*, 1, 1354a1.

31) Ibid., 1, 1356a25.

32) Ibid., 1, 1356a30.

의 영역에서 증명이나 논증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략 삼단 논법을 논증에서 “가장 강력한 것”³³⁾이라고 부른다.

수사학과 연설가의 임무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그리스도교로 전회(轉回)된 수사학은 그리스의 로고스의 개념을 재해석한다. 신약성경 요한 복음의 첫 구절인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에서 말씀이 그리스적 로고스에 해당한다. 그리스도교 수사학은 수사적 표현 기교나 형식에 국한시켜 이해될 수 없다. 그리스도교 수사학의 본 영역이 성경이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성경에서 추출된다. 그러므로 설득은 설득의 기술이나 형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의 내용인 성경에 의해 좌우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설교의 핵심적인 요소로 ‘가르침’을 강조하는 이유도 설교는 말씀인 로고스를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설교는 설교의 기술에 주목시키는 것보다 로고스에 주목시켜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교로서 성경을 모델로 해서 그리스도교 수사학의 구조를 체계화했다. 그는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가르치고, 기쁘게 하고, 설득하는 키케로의 연설가의 임무에 기초를 두고 수사학을 설계한다. 그리스도교 연설가는 로고스를 통해서 설득하고, 청중들의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연설가 자신의 모범적 삶을 통해 설득을 획득된다. 그리스도교 설교지는 성서나 기도에서 논증을 구할 것이며 신은 그의 입에 좋은 언변을 제공한다. 『그리스도교 교양』은 로고스의 모든 힘을 설득의 다른 수단과 진리에 이르는 다른 방법에 합당하도록 배치시킨다.³⁴⁾

4. 나오는 말

그리스도교 초기 교회는 수사학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이교의 산물인 수사학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리스도교 수사학의 목적은 무엇이며, 설교 양식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33) Aristotle, *Aristotle on Rhetoric*, 1, 1355a5.

34) “logos”, *Encyclopedia of Rhetoric* 참조.

리스도교 성서의 해석 등에 대해 고찰했다. 수사학 교사를 지낸 경력이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성서를 수사학적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으며, 수사학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할 바를 발견하는 방법과 깨달은 바를 전달하는 방법에 관여하며 특히 깨달은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 수사학은 성경의 의미 발견과 의미의 전달을 통한 설득과 소통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수사학의 이러한 주제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론인 ‘설교’와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을 진리로 이끄는 ‘설득’의 문제로 정착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수사학은 고전 수사학과 구별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용하고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 수사학의 설득의 요소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토대로 그리스도교의 수사학의 공리를 제시했다. 그는 수사학을 그리스도인을 설득시켜서 그리스도교 이상에 부합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수단으로 인식했다. 성서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상이라는 두 주제를 수사학의 목적인 설득을 매개로 연결시키고 있다. 중세 수사학의 실행인 설교는 성서의 진리를 인간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설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구로 정착되었다. 고전 수사학이 이성에 토대를 두고 청중으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설득을 일구어냈다면, 그리스도교 수사학은 신앙이라는 토대 위에 성서의 진리와 청중의 조우를 통해 진리에 동의하고 믿음을 형성하며 행동을 이끌어내는 설득을 지향한다. 이런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수사학은 성서의 수사학이며 그 실행은 설교이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교적 삶으로의 이끄는 설득이라는 체계를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 교육론』. 김종흡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 _____. 『삼위일체론』. 김종흡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 _____. 『그리스도교 교양』. 성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9.
- _____. 『그리스도교 교양』. 성염 역. 왜관: 분도 출판사, 1989.
- _____. 『자유이지론』. 왜관: 분도 출판사, 1998.
- _____. 『참된 종교』, 왜관: 분도 출판사, 1989.
- _____. 『고백록』. 성한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Augustinus. *Civitate Dei*. The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_____. *De Dialectica* Ed. J. Pinborg & Trans. B. D. Jackson, Dordrecht: D. Reidel, 1975.
- _____. *De Doctrina Christina*, Corpus christinanorum, series latina XXIII, Turnhout: Tiel, 1962.
- _____. “Christian Instruction”, *The Fathers of The Church: Augustine* vol. 2. Washington D. C: The Catholic of America Press, 1985.
- _____. *De Magistro*. Roma: Nuova Agostiniana Città Nuova Editrice, 1970.
- Aristotle. *Aristotle on Rhetoric*. Trans. George A. Kenned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_____. *Topica*. Trans. E. S. Fors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 Cicero. *De Oratore*. H. Rackham, M. 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_____. *De Inventione*. H. M. Hubbel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Bourke, V. J. *The Essential Augustine: selected and with commentary*.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1964.
- Frederick, Van Fleteren. "St. Augustine, Neoplatonism, and the Liberal Arts: The Background to *De doctrina christiana*", *De doctrina christiana: A Classic of Western Culture*. Ed. Duane W. H. Arnold & Pamela Bright.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5.
- Kennedy, G. *A new history of classic rhetori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Marrou, Henry. *St. Augustine and his influence through the age*. London: Harper & Brother, 1960.
- Herrick, J. A. *The History and Theory of Rhetoric*. Boston: Allyn & Bacon, 2001.
- Murphy, J. J. ed. *A Synoptic History of Classical Rhetoric*. New York: Random House, 1972.
- _____. *Rhetoric in the Middle Ag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_____. *The Rhetoric of St. Augustine of Hippo*. Ed. Richard Leo Enos & et al.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8.
- Plato. *Phaedrus*. Trans. Stephen Scully. Massachusetts: Focus Press, 2003.
- Terence, Irwin. *Gorgias*. Oxford: Clarendon Press, 1982.
- Sloane, Thomas O. *Encyclopedia of Rhetor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Quintilian. *The Orator's Education*, Ed. & Trans. Donald Russel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수사학의 활용방식으로서 설교와 설득의 문제

문 영 식

본 논문은 수사학의 활용으로서의 설교에 나타난 설득의 문제를 고찰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수사학에 대한 이해의 역사를 간략히 살핀 후에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통해 수사학 일반에 있어서의 설득의 문제를 탐구하여 설득에 관계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특히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설득의 요소에 주목한다. 그런 연후에 설교에 있어서의 설득의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설득의 세 가지 요소들의 개념이 세 사상가를 통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그리스도교의 한 연설 양식인 설교의 위치로 말미암아 어떻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고전 수사학에서 논의된 설득 요소들의 개념을 그리스도교적으로 변용하여 발전시켜 중세 수사학을 정초했는지 밝힌다. 즉 여러 연설 형식 안에서 설득의 문제에 천착한 고전 수사학은 그리스도교와의 조우를 통해 중세 초기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특히 수사학이 설교에서 활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설교는 설교자가 연설을 통해 성경에 담긴 신의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행위인데 그때 교화와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수사학은 고전 수사학이 천착한 설득의 요소를 계승하여 그리스도교의 삶의 요구에 따라 변용하였고, 특히 설교라는 종교 활동 안에서 효과적으로 진리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제어: 수사학, 설교, 설득,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Abstract

The Problem of Persuasion in Sermon as an Application of Rhetoric

Moon, Young-Sik

This paper considers the problem of persuasion in sermon as an application of rhetoric. For that purpose, first, it briefly looks into the history of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hetoric. After that, through the works of Aristotle, Cicero and Augustinus, it investigates into the problem of persuasion in rhetoric in general to recognize factors involved in persuasion. It especially pays attention to three elements of persuasion: ethos, pathos, and logos. To gain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of persuasion in sermon, it explores how the three elements were conceptualized historically in three thinkers. In this way, the paper shows how Augustinus, through a consideration of sermon that is a mode of speech in Christianity, came to found the medieval rhetoric by transforming and developing the conception of three elements of persuasion in the classical rhetoric of Aristotle and Cicero. That is, the classical rhetoric, which engaged in the problem of persuasion in various forms of speech, is transformed through an encounter with Christianity, especially because it came to be applied in sermon. Sermon is a speech in which the preacher delivers the divine message in the Scripture to the audience, and which aims at not only providing edification and entertainment but also teaching Christian doctrines. Therefore, having

adapted the elements of persuasion in the classical rhetoric to the demands of the Christian life, the Christian rhetoric especially in sermon played a role of effectively transmitting truth and persuading people.

Key Words: rhetoric, sermon, persuasion, ethos, pathos, logos

논문 접수일: 2010년 9월 26일

논문 수정일: 2011년 5월 9일

논문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13일
